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복음	마르코 12:38-44
--------	------	-----------------	------	--------------	----	--------------

◎말씀 < ‘평신도 희년의 해’ 를 보내면서 >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는 ‘평신도 희년(2017. 11. 19. 평신도 주일 ~ 2018. 11. 11. 평신도 주일)’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탈출 23,12 참조),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냈습니다(탈출 23,11 참조).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곡식이나 돈을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도 안 되고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신명 15,1-2 참조). ‘희년’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다음 해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거나 상속 받은 것을 회복하고, 노예는 해방되어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희년’은 매우 특별한 은총의 해인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는 구약시대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신앙의 은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게 주신 ‘희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도록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등과 부당함을 청산하여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의 희년을 보내는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하나, 우리는 미사에서 힘을 얻어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분단과 분열의 아픔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년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짚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13일(화)	성녀 프란체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동정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 4,640.00
			주일헌금	\$ 987.00
11월 14일(수)	연중 제32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성소후원	\$ 183.00
			사회복지	\$ 113.00
11월 15일(목)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 물 방	\$ 188.00
			원캠페인	\$ 300.00
11월 16일(금)	연중 제32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 30.00
			사제관건축	\$42,000.00
11월 17일(토)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48,441.00
11월 18일(일)	연중 제3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8성인: 188명
교무금 봉헌자	최준규((9-12월)김현준.김채홍(10-11)김용문.홍명숙.안병훈.안선미(9-10)장호길.한승운(8-9월)권오돈(7-9월)김기상(5-7월)이민석(3-5월)김은영.전정옥.장신자(10월)권영일.김창영.구준모.김운태.허형.김상돈 남필레.엄규홍.지복원.이상기.허용희.백정심.전기례.김병준.박용호.이정규.나송희.김영숙(11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 본당은 친교의 집. 기도하는 집. 동네의 샘입니다)

연옥(煉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산 이들뿐 아니라 죽은 이들도 기억합니다. 목주기도를 바칠 때 매 단마다 연옥의 영혼, 특히 가장 외로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례 때나 기일에 연도를 바치고 위령성월에는 앞서가신 모든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다시 말해 하느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루카 22,54-62 참조) 연옥의 느낌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연옥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실이나 '단순히 사랑 없이' 한 행동 때문에 얼굴이 화끈 거리는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화의 고통을 겪은 이후 에야 비로소 사랑 넘치는 주님의 시선을 천상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마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까지 이릅니다. 단식과 기도, 선행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를 통해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공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구원송)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황순이. 마리아 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염모니카 신용경. 그레고리오/배미성. 오티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혜리나. 헬레나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모든 레지오 연령	순교자들모후Pr.	연	양성근. 파스칼의 영혼	순교자들의Pr.
연	박우돈. 요셉의 영혼	박재례. 마리아			
연	장현녀. 마리아의 영혼	박재례. 마리아	생	본당심부님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이석범. 베드로의 영혼	박재례. 마리아	생	이강덕. 시몬의 건강회복	박재례. 마리아
연	홍재구. 마태오, 도무생. 안나의 영혼	송돈희. 요셉	생	김예빈. 글라라의 빠른 회복	이영숙. 데레사
연	송주우의 영혼	홍덕주. 로사			

◎이해하기 힘든◎

내가 들은 그 음성 때문에 울음 그쳤습니다. 용서 해다오, 언젠가 너도 알 날이 올 것이다, 지성, 감성보다, 정신보다, 영혼의 음성으로 언젠가 이 외로움조차 주님 뜻임을 알게 하소서.

마종기 노렌조 · 시인, 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간
장
종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1.평신도 주일

교회안에서의 평신도 사명을 되새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합시다(강론;사목회장)

2.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25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하상회.전교부 미사에 함께해주세요.

3.모임안내

하상바로;11일(일)교중미사후.마테오방
거룩한독서;14일(수)오후7시.성당
아빌라데레사회;17일(토)오후7시30분.엘리사벳방
꼬미시움;18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4.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15일(목)오전9시.부제님
박성진.율리아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5.새 사목회장 선거안내(임기;2019년)

일시;18일(일)교중미사후 성당
구역.단체.개인별로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6.꾸리아 간부 Workshop(서북미 한인꼬미시움).

일시;11월16일(금)-18일(일)Angel Camp
장소;WorkMark Angel Camp.
참여대상;꼬미시움.꾸리아간부.운영위원및가족

7.연말 꾸르실리스타의 밤

일시;11일(일)오후1시.샌프란시스코성당
대상;사무국간부

8.무료건강검진 결산보고

총수입;\$3,500(도네이션) 잔액:\$46.90
총지출;\$3,453.10(백신등 의료물품구입)

9.거룩한독서 안내

종강;17일(수) 개강;19년2월6일(수)창세기 개론
문의;김병준부제님. 새 참가자를 환영합니다.

10.교구 2차헌금

일시;18일(일)모든미사
목적: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11.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3박4일)

일시;2월25일(월)-28일(목)멕시코 과달루페
순례비용;\$1,190(1인) ※게시판참고해주세요
신청;유정임(참가신청서.여권사본;11일까지)

<주일/한글학교 소식>

첫영성체 교리반 시작

일시;격주 일요일 오전10시.사무실
교사;장선영.스콜라스티카

●식사봉사(이번주);복지부 보조;이원건.전비아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안강순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원캠페인;최준규(\$100)송돈희(\$200)

개인별 약정금액을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관건립기금;없음

목주기도;835단

합계;515,284단

화답송	시편 146(145).6-7.8-9.9-10(◎ 1) 손 상오 신부 작곡			
	 <p style="text-align:center">내 영 혼 아,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p>			
전례봉사	연중32주일(11월11일)	연중33주일(11월18일)	연중34주일(11월25일)	대림제1주일(12월2일)
해설	김은선.제노베파	문선영.바실리아	김선영.플로라	김용문.요한
제1독서	구준모.요한	구준모.요한	최범진.아브라함	안강순.안젤라
제2독서	이혜련.데레사	신정옥.데레사	박명혜.엘리사벳	이서향.미카엘라
복사	김규철.장현철	최진호.송돈희	최준우.허호영	윤여훈.이상인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나송희.류정임	송돈희.임상일	안강순.고원석	이나숙.정의주